

모국어에 대한 갈증 풀어준 책

시인 박기동씨가 뽑은 진등의청의 《반신욕》

〈부용산〉의 시인 박기동씨(85)는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이다. 30년 경력을 헤아리는 요가와 생활이 된 등산으로 수련하듯 몸을 단련해왔다고 한다. 노시인이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반신욕》(진등의청, 김소림, 학영사)이다.

“호주에서 2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20여일 동안 행사가 잦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 신간을 읽을 틈이 없었죠. 이 책은 우연히 읽게 됐는데, 목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선뜻 손에 든 건 본디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 한글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반신욕이란 명치 아래 부분만 20~30분 동안 미지근한 탕 속에 담그는 것이다. 이 책은 이 방법으로 감기,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스트레스 등 현대인이 많이 앓는 질환을 쉽게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폐결핵으로 누이를 잃었다. 그 누이를 고향의 부용산에 묻고 오는 길에 읊은 시가 바로 〈부용산〉이다. 이 시는 〈엄마야 누나야〉를 만든 안성현이 곡을 붙여 널리 불렸다. 그런데 안성현이 월북하고 이 노래를 빨치산이 즐겨 불렀다는 이유로 그는 평생 좌익시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야 했다. 그 탓에 그렇게 바랐던 시집을 여태 한권도 펴내지 못했다.

“발간을 앞뒀던 첫 시집을 한국전쟁 때 잃었습니다. 검열이 심하던 시기에 가까스로 출간이 결정됐는데, 참화 속에서 시들이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시집을 낼 만큼 시가 모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집을 온통 뒤져 다 빼앗아가는 통에 붓을 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0년째 시드니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70대 중반에 떠나 이번 방문이 두번째고, 소원하는 시집에 앞서 수필집 《부용산》(삶과꿈)을 동반했다. 그



“이 책을 선뜻 손에 든 건 본디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 한글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가 수련하듯 몸을 단련하는 것은 시에 대한 염원과 사랑 때문이다. 읽고 쓰는 작업에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생활은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했고, 시집 한권 품지 못한 시인임을 새록새록 자각하게 했다고 한다.

“적지 않은 나이에 타지로 떠난 까닭을 다들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1년 반 혹은 2년 후에 펴낼 첫 시집에 털어놓을 작정입니다.”

박씨는 지난 8일 호주로 떠났다. 〈부용산〉과 〈바다〉, 이렇게 단 두편만 남은 그의 시에 타지에서 절감하는 고독과 지난날의 삶을 오롯이 담은 글들을 보태 단정한 시집으로 독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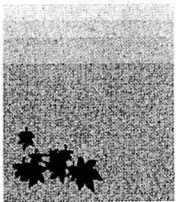
〈내 서가의 책 한권〉을 통해 많은 이들의 ‘내 인생의 책 한권’을 접해온 독자들은 노시인의 선택이 생뚱하다고 여길 것이다. 현대사의 질곡과 궤를 같이 했던 책을 기대했다면 말이다. 실로 이 책은 노시인에게 특별한 감화를 줬다가, 은밀히 품고 다녔던 ‘인생의 책’은 아니다. 돌아올 확약 없는 출국을 사활 앞두고 기자는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박씨를 소개하고 싶었고, 박씨는 이번 방문 동안 우연히 읽게 된 이 책을 기꺼이 소개해줬다. —차정신기자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더욱 새로워진 신간종합정보지, **출판저널**이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 ▶연간 구독료: 40,000원
- ▶반년 구독료: 22,000원

출판저널 구독문의: 732-1433



단국대학교 구내서점 직원모집

우리 서점은 오랜 전통과 정도의 외길,
25년을 걸어 왔습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미래의 서점문화를 가꾸고자 합니다.
(남·여 기혼여성 유경험자 우대, 미혼 환영)

단국대학교 구내서점

Tel. 02)795-0208, 709-2109 Fax. 02)798-4981